



## 국제 바가지 (上)

신 정 일

(본지편집위원·유일농원 영업부장)

### ● 밀림의 복소리

그날은 3월 초순, 어느 일요일이었다.

그때까지 미처 둘러보지 못했던 파리시내의 관광명소를 찾기 위하여 인도네시아 친구들 3명, 필리핀 친구 1명과 모두 다섯명이 트로카데로(trocadero)광장에 모여 아침 9시부터 도보로 걷기 시작하였다.

세느강을 건너 에펠탑에 올라가고, 영발리데(The Invalides)의 나폴레옹 기념관을 거쳐 루부르 박물관에 이르렀을 때는 벌써 오후 2시쯤—제일 먼저 지친 인도네시아의 한명이 이제 그만 돌아가자는 주장을 무마시키키고 루부르의 모나리자와 105 케럿짜리 다이아몬드등을 둘러본 뒤 노트르담 사원에 도착하자 이제는 더 이상 못다니겠다는 그들과 헤어져 필자는 미셸린(michelin) 그린북(Green Book) 안내책자 한권을 손에 들고 세느강을 다시 건너 강의 우안에 자리잡고 있는 마라이(The marais)를 향해 혼자 걷기 시작했다. 초록색의 안내책자에 별(star)의 개수로 유명지역을 표시하고 관광객에게 적어도 어디 어디만큼은 꼭 가보라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지만, 사실상 파리시내는 어디를 가나 길바닥에서부터 모든 건물과 다리에 이르기까지 도시전체가 하나의 예술작품과 같기 때문에 필자는 유명지역을 향하는 도중, 일반적인 거리의 풍경과 모습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유심히 살피곤 했다.

마라이(The marais)를 구경한 뒤 좁은 뒷골목을 빠져나오는 동안 어두운 저녁이 되었고 하루종일 걸은 필자도 이제는 완전히 지쳐 무거운 다리를 끌고 영어를 말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기 힘든 파리시민들에게 “에

트로 스테이션”(metro station : 파리의 지하철을 메트로폴리탄이라 하며 보통 그들을 메트로 스테이션이라고 부른다)이라는 한마디로 길을 물어 이웃의 가까운 지하철역 Rambuteau에 도착 호텔로 돌아가기 위해 지하철에 몸을 실었다. 파리의 지하철이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거미줄 같이 복잡하면서도 체계있게 잘 되어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다. 안내책자 하나를 손에 들고 어두운 저녁 늦게까지 낯선 '파리의 뒷골목을 혼자 걸을 수 있었던 필자의 깡(?)도 단순히 이러한 지하철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지하철이 서로 얽키면서 지하철역이 생기다보니 단순히 노선이 지나는 간단한 역과 몇개의 노선이 부딪히면서 이루어진 복잡하고 큰 역들도 생기게 마련이었다. 필자가 호텔로 돌아가기 위해 처음 탔던 11번로선에서 9번로선으로 갈아타는 지하철역 리파블릭(République)도 오페라, 콩코트, 몽빠르나쓰, 나치운동의 지하역과 함께 파리시내 대표적인 복잡한 역중의 하나였으며, 이러한 복잡한 역에는 한 로선으로 가기위한 지하복도가 또한 복잡하게 얼켜있게 마련이다. 숨같이 피로해진 다리를 끌면서 기차를 갈아타기 위해 리타블릭역의 지하복도를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필자의 귀에 언제부턴가 어디서인지도 모르게 밀림의 북소리—우리들이 영화같은에서 많이 들어 알고 있는 “둥둥둥, 두두둥, 둥둥둥, 두두둥, …, 하는”하는 아프리카의 오지, 밀림속에서나 들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토인들의 북소리가 은은히 들려 온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수많은 파리장과 빠리잔들, 수많은 외국인들이 저마다의 독특한 차림과 모습으로 바쁘게들 오고 가고 있는 지구의 한 복판 파리 지하철역의 지하복도에서 은은하게 들려오는 밀림의 북소리를 필자는 애초 기이하게 생각했고, 필자가 목적지로 하고 있는 플랫폼쪽으로 가면갈수록 점점 더욱 강하고 세차게 지하복도를 흘러넘쳐오는 북소리는 이상한 호소력과 마력을 지닌채 필자의 머리를 사로잡기 시작했다. 순간, 복도의 한 모퉁이를 돌았을 때, “탕타당 타다당”하고 꺾전을 때리면서 폭포수와 같이 울려퍼지는 북소리의 진원지를 발견하고 필자는 움찔 놀라면서 그쪽으로 다가갔다. 좀 넓은 복도의 한쪽 코너에 많은 행인들에 둘러 쌓인채 한 사람의 젊고 전장한 흑인이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진지한 표정으로 열심히 북을 두드리고 있었고, 이 북소리는 폐쇄된 지하의 벽을 두드려 반향되면서 더욱 강한 울림으로 사람들의 가슴을

때리고 있었다. 완전한 꿈슬머리에 윤기나는 검은 피부와 전형적인 아프리카인들의 두툼한 입술이 아닌, 잘생긴 얼굴을 가진 건장한 그 젊은이는 그의 앞에 여기저기 흩어져 쌓여있는 동전에는 아랑곳 하지않고 그의 고향 밀림마을에서 가져 온듯한 그들 고유의 복을 그의 검은 손바닥으로 열심히 두드리고 있었다. 그 주변에 서서 구경하고 있는 행인들과 함께 북소리를 듣고 있는 동안 몸과 마음에 쌓인 피로가 점점 풀려나가는 것을 느끼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필자에게 히피의 머리스타일을 한 젊은 친구가 그의 애인을 옆에 끼고 담뱃불을 요청해 왔다.

담배를 피우지 못하는 필자는 본능적으로 거절했다가 아침에 트로카데로 광장에서 기념성냥을 한판 산 것이 순간적으로 기억이 나서 잠깐 기다리게 하고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으나 좀체 찾아지지 않아 시간이 좀 걸리는 동안 그 친구는 담배를 들고 그 북소리에 맞춰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둘러서서 구경하는 행인들 중에는 춤을 추면서 듣는 친구들이 제법 있었고, 오고가는 행인중에 섞여 있는 흑인들중에는 어떤 친구는 고향의 낮익은 북소리를 만났다 해서인지 반가운 표정으로 춤을 추면서 지나가고 어떤 흑인들은 자기들의 자격지심을 느껴서인지 달갑지 않은 표정으로 서둘러 지나가기도 했다. 북치는 젊은이는 여러가지 레파토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 곡을 두드리고 땀을 닦으면서 조용히 쉬었다가 또 두드렸다. 어떤 곡은 조용하고 은은하고, 어떤 곡은 장중 하고 무겁고, 또 어떤 곡은 경쾌하고 명랑했다.

히피스타일의 친구는 담뱃불을 빌리면서 춤을 추고, 그 옆의 애인은 명청히 북소리를 듣고있고, 동양의 애송이 촌놈은 주머니를 뒤적이고, 흑인들이 오고가고, 행인들이 둘러서서 구경하는 사이로 홀태바지를 팽팽하게 입은 아가씨가 엉덩이를 흔들면서 경쾌하게 지나가는 파리의 지하철 복도. 파리는 오가리 잡탕이고, 오가리 잡탕이 모여서 조화를 이루는 곳에 또 하나의 매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 파리인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유럽의 다른 지역을 보기 전에 파리부터 먼저 구경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지만 사실 파리는 그 도시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을 압도시키고 만다. 필자가 프랑스에 체제하는 동안 파리시내를 돌아다니고 프랑스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성(城: chateau)들을 구경하면서 그들 선조들의 놀라운 유물에 경탄했고 동시에 필자는 우리들의 선조들이 물려 준 찬란한 반만년 역사의 문화유물들을 상기하면서 그들보다 높이 평가할 수 있는 우월성을 찾

으려 노력해 보았지만 필자의 망막에 떠 오르는 불국사의 전경은 아무리 해도 초라해 보여 항상 마음이 개운치 않았고, 결국은 필자의 마음은 빼돌어지기(?) 시작하여 “이들이 이렇게까지 건축하고 이렇게까지 향락을 누리기 위해서는 역사상 그 얼마나 많은 약소민족들의 고혈을 빨았고 약한 국가들을 착취했겠는가”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한 계통이 또 다른 집단을 철저히 이용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문화유물의 형성이 이루어지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조들의 유물을 최선을 다하여 보존관리하면서 그 혜택을 받고 있는 현재의 프랑스인들의 기질은 매우 싹싹하고 부드럽고 친근감이 가는 마음자세를 지니고 있는 것 같았다.

아직 우리나라에 상영되지 않았지만 대부(The God Father)를 제작하여 유명하게 된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감독이 최근 제작한 현대 묵시록(Apocalypse Now)의 영어판을 상영하는 영화관을 찾기 위해 샹젤리제(Champs Elysees)의 골목들을 뒤흐다다니다 필자는 우연히 틴에이저 아가씨들까지 포함된 청소년들의 패싸움 현장과 부딪히게 되어 그들의 주변에서 한참 구경했지만, 그들의 집단 싸움에는 살기같은 무서운 느낌을 느끼지 못했으며,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짱돌이나 각목 혹은 맥주병같은 흉기는 없고 발과 주먹만으로 치고 받았다. 아가씨들도 설쳐대었으나 결코 여자에게는 손대지 아니하고 적진으로 명렬히 대시해 들어간 친구가 그가 목적하는 적측의 사내앞에 여자가 끼어 있더라도 그 여자를 빙 돌아 피해서 상대의 남자에게 공격해 들어가곤 했다.

오랜 전통의 찬란한 유산을 물려 준 선조들의 후예는 이렇게 패싸움에서까지 신사화(?)되었고, 우간다의 고향을 떠나온 흑인청년은 밀림의 향수를 달래면서 착취당한 약자의 울분을 파리의 지하복도에서 북을 두드리며 외치고 있는 역사의 단면이 된 것일런지도 모른다.

### ● 로마의 사우디 아라비아팀

파리의 리용역에서 로마행 야간열차를 타고 눈덮힌 알프스의 기슭을 뚫고 우중충한 로마에 도착한 것은 이미 정오가 훨씬지난 오후 3시쯤이었다. 역시 다른 친구 한명없이 홀홀단신으로 붉은색의 솔더백만 어깨에 하나 메었다. 호텔방을 잡아놓고 원형경기장, 카피톨레(Capitole) 등을 돌

아보고 초록색 안내책자를 움켜진 채 어떤 번화한 거리로 어슬렁거리며 지나가고 있는 필자에게 30代 초반으로 보이는 청년 하나가 불쑥 옆으로 부터 말을 걸어왔다. “트레비 샘(Trevi Fountain)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었다. 사실 필자는 그때까지 로마의 트레비 샘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트레비 샘이 무엇이냐?”고 도로 물어봤고 이렇게 시작된 대화는 서로 어디서 왔느냐는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었다. 그는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사업차 왔고 제노바에서 어제 일을 마치고 오늘은 돌아가는 길에 로마구경을 하러왔다는 것이며 한국에서 왔다는 필자를 매우 반가워했고 그는 한국을 좋아한다면서 현대그룹과 대우실업과 무역을 하며 특히 럭키그룹과는 플라스틱제품을 수입하고 있다고 했다. 영어를 유창하게 말하고 아랍인형으로 생긴 그를 필자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고 영화 로마의 휴일에도 나오는 유명한 트레비 샘이 바로 이 부근일 것이라며 동전을 던져 넣으면 행운이 온다는 그 샘을 자기도 구경가는 도중이니 같이 가자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부담을 느낀 필자는 혼자 있고 싶어서 마침 길가에 로점 서적상들이 즐비하게 있는 곳을 지나면서 그 친구에게 나는 이것을 구경하고 가겠으니 먼저 가라면서 서로 헤어지고 그리고 나는 그를 잊어버렸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탈리아라고 하면 소매치기와 도둑을 연상하는 사람이 많지만, 유럽에서 로마에 구경간다고 하면 누구나 모두 이들을 조심하라고 한다. 때문에 필자도 로마에 내려 돈을 적당히만 바꾸고 나머지 프랑화페는 매우 깊숙히 따로 보관하고 바꾼 리라화페도 둘로 나누어 청바지의 양쪽 주머니에 나누어 넣었다.

저녁 7시가 다 되어가고 어둑어둑해진 거리를 가면서 오늘은 우선 저녁이나 먹고 나온김에 조금전의 그 친구가 이야기해준 트레비 샘이나 구경한 후 일찍 들어가서 좀 쉬어야겠다는 생각에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는데 마침 식당을 발견하고 문을 열려고 하니까 잠겨 있기에 들여다 보는데 안에서 사람이 나와 7시부터 영업이라고 하여 다시 오기로 하고 모퉁이를 돌아 서니까 바로 그 지점이 문제의 트레비 샘이 있는 광장이었던 것이다. 필자는 “아하 바로 이것구나!” 생각하고 마침 비가 후두둑 떨어지기에 길거리의 양화점에 들어가서 한참 비를 피한 후 샘가로 다가가는데 누가 손을 번쩍 들면서 반기는 것이었다. 바로 조금전의 그 사우디 아라비아인이었다. (계속)